

연중 제 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弥撒)

제 1독서 : 2 역대 24, 18-22

제 2독서 : 루마 5, 1-5

복 음 : 마태 10, 17-22

술 정 이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 22)

강 론

새 생명으로 살고자

최용준 신부 / 대야 천주교회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때론 그 일을 좋아하게 되지만, 먼훗날 그 일들을 돌이켜 보면 그 일이 사람에게 봉사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일에 봉사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일의 성과나 업적은 사람에 관계없이 훗날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약과 병고와 소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봉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품위를 손상케하는 망언일까?

인생을 헛살았다 함은 어느 일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쓸데없는 허용만 키워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의 혼과 숨결이 스며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람된 삶, 후회없는 삶은 묘하게도 자신의 혼과 정열을 불태울 수 있는 꿈과 이상을 찾아 나서고, 그것이 염원으로 이어질 때 사람은 사람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고 그로부터 부여받은 인생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기에 세상은 욕망의 언덕이 아니라 자기 승화의 현신의 장이다.

김대건 신부님은 하늘을 바라다 보았고 어린나이에 주어진 자신의 소명 길에 충실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끝없는 염원이었기에 그 생명의 불꽃은 굳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 순교의 월계관은 김대건 신부님의 생명을 끊었으나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새 생명을 넣는 축복이 되었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가는 일이야 말로 신앙인들의 염원이자 소망이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사랑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오롯이 복음에 봉사함으로써 참 삶의 길을 열고 소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소 리

주민들의 뜻

붕괴된 삼풍백화점 A동 지하3층에 매몰된 환경미화원 24명을 구출한 10시간 30분에 걸친 구조작전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텔레비전을 통해 구출현장을 지켜 본 온 국민들은 한 사람씩 죽음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환호하고 구조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고도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 자신의 건물과 함께 무너졌다.” 외국 신문이 머리기사로 전한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이다. 또 다른 신문은 “중동을 비롯 세계 각지에서 거대한 건설공사를 훌륭히 해내 명성을 떨친 나라에서 9개월 사이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나라는 사고 백화점인가?’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땅밑에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대형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인명수심의 파렴치 사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어찌 자고 이러는 것일까.

불과 10여 일 전, 35년 만의 4대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됐다. 여당에는 패배를, 야당에겐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선거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과주의와 전시행정이 빚은 결과 아니겠는가.

지방화 초기의 주역으로 뽑힌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의식주에서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실천해야 한다. 그럴때 삼풍백화점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박수를 받게될 것이다. ◎

술정이 산책



지방선거 결과

성서교실 56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창세 41, 1-36)

그로부터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다는 표현은 엘로히스트 문헌에서 이야기의 도입부에 즐겨 사용하는 문구이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권자인 파라오가 아주 신비스런 꿈을꾼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신과 직접 통교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왕의 꿈을몹시 중요하게 취급하는 관습이 있었다. 파라오가 꾼 꿈은 앞에서 요셉의 꿈과 두 시종장의 꿈처럼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이 한 쌍의 꿈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목축과 농업을 하던 이집트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데, 첫번째 꿈은 목축과 관계가 있다. 파라오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어 곧 여위고 못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오더니 먼저 나온 살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을 잡아 먹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곱은 완전한 숫자로서 완전한 축복이나 완전한 저주를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 꿈은 농사와 관계가 있다. 곡식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잘 여물어 가는데, 뒤이어 돌아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쪽정이가 되어 버렸더라는 것이다. 이 쪽정이 이삭들이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 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셋바람은 원문에 동풍으로 되어 있는데, 팔레스티나 동부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열풍을 가리킨다. 시로코라고도 불리는 이 무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해 농사는 망치고 만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 꿈 내용이 불길한 것 같아 마음에 자꾸 걸리어 뒤숭숭해진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 내의 모든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인다. 파라오는 마술사들에게서 꿈 속에 나타난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힘을 얻어내고자, 그리고 현자들에게서는 충고와 의견을 경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이 꿈을 풀이하지도, 꿈과 관련하여 그럴 듯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때 애슐잔 시종장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요셉에게 은혜도 갚고, 왕의 신임도 얻어내고자 왕에게 그를 추천한다.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불러내어 자신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한다는 불평과 함께 요셉에게 꿈을 푸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는 요셉

자신에겐 아무 능력이 없고, 하느님만이 꿈을 풀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것들이 하나의 같은 내용을, 두 가지의 상징적인 영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일곱 마리의 살찌고 잘 생긴 암소와 통통하게 익은 이삭 일곱 개는 칠 년간의 연속적인 풍작을 가리키고, 깡마른 암소와 쪽정이 이삭 일곱 개는 칠 년간의 연속적인 흉작을 가리킨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칠 년씩이나 계속되는 풍작과 흉작은 아주 드문 현상이었다. 이런 대풍작과 흉작을 예견한다는 것은 분명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다. 요셉은 자신의 예견이 하느님의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누차 강조한다. 그는 파라오 앞에서 하느님이 직접 왕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 주셨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파라오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한다(창세 41, 16. 25. 28. 32).

요셉은 꿈에 제시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견을 파라오 앞에 내놓는다.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은 지혜로운 책임자를 선정,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 책임자 밑에 성실한 감독관들을 두어, 풍작이 계속되는 칠 년 동안 소출의 오분의 일씩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세금으로 거둬들인 잉여 농산품은 다음 칠 년의 흉작이 닥칠 때 방출하여, 모든 이집트 국민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하느님의 은총에 돌리는 요셉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겠다.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베링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엔모아 정수철(시몬)·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 86-2 2884, 80-140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콘, 항온항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날리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 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 84-1030, 2030, 3477

능력별 소수 정예전문 전북 청솔학원
고입·대입종합반, 중·고 그룹반
원 장 김낙필(시몬)
기획실장 손 문(요한)
교무부장 문 철(임마누엘)

잠깐

주님의 은총의 해

4. 2000년 대회년 준비와 삼위일체 ①

제2단계 준비(1997~1999년)

제2단계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비 단계로서 이 단계의 공통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특히 신자들의 신앙과 증거를 공고히 하는 데 첫째 목표가 있다. 1998년은 성령의 해로서 성령의 종말론적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희망과 교회 내에서의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1999년은 성부의 해로서 사랑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기초로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응답, 그리고 종교간의 대화를 강조하게 된다.

1997년 : 그리스도에 대한 사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신비인 육화(肉化), 곧 하느님의 사람되심의 중요성 때문에 회년의 그리스도론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사도 2,42)인 “교리”(catechesis)를 새롭게 공부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오류와 이견을 해명하면서 신자 각각의 양심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또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에, 성모 마리아의 구원사에서의 역할과 신앙의 모범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천주교회 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제공)

교구소식

1. 천호 피정 안내 : 7월 15일~17일, 주제-내 삶의 별은?
강사-박종근 신부, 문의 73-6600
2. 재무평의회 : 7월 11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3. 구역(반)장 연수회 : 7월 11일(화) 오전 10시 영등동 성당(이·익 지구)
7월 12일(수) 오후 2시 신풋 성당(김·정 지구)
7월 13일(목) 오후 2시 장수 성당(무진장·임순남 지구)
4. 새 사제 연수 : 7월 13일(목) 교구청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7월 16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타
6. 축! '성서교실' 출업 및 수료식 : 7월 14일(금)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타
7. M.B.W '현대 복음 선교' 수련회 : 7월 15일~17일 나바위 피정의 집, 회비 - 40,000원, 집결-7월 15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센타, 접수-화산동 성당(☎ 221-9842)
8. 순교자 현양시 공모 : 원고 마감-8월 10일, 접수 및 문의-전동 성당(☎ 82-7245)
9.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 7월 16일(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회의실
- ※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이영우 신부님
13일(성헨리코) 김영수 신부님
15일(성보나벤뚜라) 이수현 신부님

효자한의원

한방각과, 비만, 알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 우 순(유스티노)
유 혜 경(루 시 아)
효자성당<-->목화APT 사거리
☎ (0652) 222-3129, 226-1075

이전개업
도성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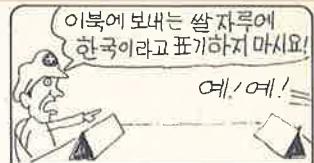
공민택(사무엘)
박순실(라파엘라)
중화산동 사거리
비사별아파트 상가 2층
☎ 226-1101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보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젬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 75-052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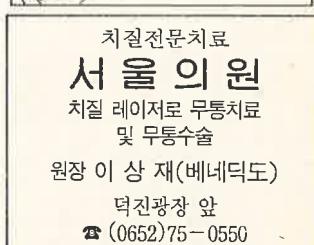
일시 : 7월 15일~16일 오후 5시
장소 : 예수 고난회 수도원(평주 일곡동)
준비물 : 운동복,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피정비 : 3,000원
문의 : (062) 571-5004, 8004

요십이 (1140)
김병오

예! 예!
우리가 보내라는 날에 보내고
바에 태극기도 달지 말고
공해를 통하여 들어오시요
예! 예!



선원들은 팬티만 입고
입향 하시요!
꽝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 각종 차량을 최신형으로 완비,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 교우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렉키아파트 앞
☎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메리워드 서거 350주년
기념미사 초대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동성성모회 본원
(성모여고 내)
· 연락 : (042) 254-6530
(오늘 분 7월 15일까지 연락바람)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14주일

- 천사의 모후Cu. 임원: 단장-박길랑(라이문도) 부단장-이홍자(그레센시아) 서기-전순오(요셉) 회계-황명권(시몬)
 - 종·고교리교사 임원: 회장-이인영(수산나) 부회장-강희현(로마노) 총무-김현아(세례나)
 - 예비자 교리: 23일부터 시작. 일요일-장엄미사 후 화요일-저녁미사 후 * 예비자 1인 1도 합시다!
 - 종·고어를 신앙학교: 본당교리-23일~26일, 살레시오 캠프-27~29일, 참가비-15,000원(본당보조 1인당 15,000원) 선착순 40명
 - 초·중·고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 접수합니다: 사무실
 - 비품마련 특별헌금 신입액: 김경자, 김복남, 익명-각 1만원. 유복남, 익명, 권영순, 안재홍, 황혜순, 이운전-각 5만원. 이광숙, 김재근, 최삼봉-각 10만원. 이복수, 강순임, 형효남, 김일선, 최경자, 이순례, 유방래, 하애순, 유광순-각 2만원. 이영임, 이복수, 김연희, 김종근, 베도선, 정진수-각 3만원. 송간순-2만5천원. 중고 교사회-5만5천원
* 소계-107만원 * 두개-3,481만3,376원
 - 감사헌금: 익명-10만원, 감사합니다.
 - 모임: ①장우회(9일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2일 어머니미사 후) ③세설리아회(14일 저녁미사 후) ④제속형제회(15일 후 2시) ⑤대전회(16일 장엄미사 후)
 - 금주 청소: 이후 3,4번 차주 청소: 이후 6,7번
- 지난주 봉헌금: 1,269,950원 □ 교무금: 1,252,000원
□ 2차헌금: 395,230원

* 목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본당 30년사 자료 수집

- 내용: 복자 본당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진, 신자 개인이 받은 표창장이나 감사장등 기타 본당 30년상 실을 만한 자료는 무엇이나 환영함
 - 기간: 1995년 7월 31일까지
 - 접수: 본당 사무실 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 사례: 좋은 자료를 내 주신 신자분에게는 사례함
 - 자료보관: 내 주신 자료는 30년사 편찬때가지만 본당에서 보관하고 돌려 드립니다.
 - 2. 교무금 월납에 정성을 다합시다.
 - 3. 모임: 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안나회-13일 오전 10시
빠스카회-16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성당 청소: 7월15일(토)-증거자의 모후Pr. 천주의 성모Pr.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황길평 가족
차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송명진 부부
봉헌-김형신 가족
- 지난주 봉헌금: 756,800원 □ 교무금: 1,439,500원
□ 감사헌금: 30,000원(임금례)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5일(토) 8시, 성당 회합실
 - 첫영성체 교리: 10일(월)~8월12일(토) 성당
 - 꾸르실로 유품례아 모임: 17일(월) 합천 해인사
 - 종·고학생여름 수련회: 27일(목)~30일(일) 순창 동계 구미국교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31일(월)~8월4일(금)
 - 감사!: ①초·중고 학생 여름행사 후원금-윤순이 40만원, 본당 신부님 10만원
②성구비-김수산나 10만원, 이기봉 2만원
 - 성당 청소: 금주-황금의 궁전Pr.
차주-셋별 Pr.
 -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주태 ②우경숙
봉헌-김봉길 가정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한동숙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70,100원 □ 교무금: 49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모임 안내:

- 율드레아-7월13일(목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강당
- 성심회-7월12일(수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강당
- 프란치스코 삼회-7월9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강당

2. 치주 모임 안내: 성모회-7월16일(일요일)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3. 초등부 신앙학교: 7월25일~28일,

장소-본당, 회비-3,000원

4. 종·고등부 캠프: 7월27일~7월29일, 회비-15,000원, 장소-살레시오 인성 수련원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청소 안내: 주주-정의의 농정녀

차주-사랑하윤 어머니

감사헌금: 익명 90,000원, 김인수(미카엘) 3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064,300원 □ 교무금: 1,050,000원

□ 2차헌금: 395,23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 ②사목회(후 8시)

-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2. 사라회: 11일(전 11시)

3. 나지렛회: 11일(전 11시)

4. 에루실렘회: 12일(전 11시)

5. 사베리오회: 12일(후 7시30분)

6. 돈보스코회: 12일(후 7시30분)

7. 구역반장회: 13일(전 11시)

8. 성심 유치원 방학: 13일

9. 정년하게 수련회: 15~16일(1박2일) 오후 2시, 장소-단궁(지리산) 회비-10,000원, 신청서 배부 및 접수-사무실(예비자, 영세자도 영행)

10. 순교자 현양시 공모: 주제-순교자 현양(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현양하는 내용. 전주교구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내용) 응모마감: 8월10일까지 보좌 신부님에게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문의전화 82-7245

11. 차주: ①사목회(후 8시)

- ②자모회(전 10시)

-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 주일 현금: 2,182,9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A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④ “현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기를 바랍니다”(갈라 6,18)

⑤ M.B.W 수련회 신청: 7월15일(토) 오후 3시30분~17일(월) 오후 2시까지, 장소-나바위, 참가비-40,000원, 오늘까지 접수 “다음주(16일)는 청소년 신앙학교: 2차원금

1. 사모회 상임위원회 회의: 11일 저녁 8시

2. 어름 신앙학교 신청: (T셔츠 및 교재 대금) 초등부 5,000원(24일~29일) 중·고등부-10,000원(23일~25일)

3. 청소년 어辱 신앙학교 수련회 은인 구함: 제단체는 의무 협조 바라며 은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반미사: 11일 저녁 8:30 8~3번 601호 심영택 형제

5. 신입교우 기정방문: 13일 오전 9시 신청바랍니다.

6. 협제 기도회: 14일 저녁 8시 8~5,6반

7. 성소 후원의 날: 16일 공식미사 후, 미사 전후 회비 납부

8. 회의: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 정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 부녀회-12일 어머니미사 후

- 제대회-14일 후 3시

- 임마누엘, 한빛회-16일 공식미사 후

9. 축복미사: 12일 저녁 8시 주광A 503동 1106호 정순태(다두) 택

10. 물적액을 감사: 7,619,000원 모든 고우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성전 건축에 봉헌합니다.

□ 주일현금: 1,568,610원 □ 교무금: 1,965,000원